

제주 잠녀 문화 문화재 지정 파란불

문화재청 문화재 지정 따른 새로운 지침 마련 중
잠녀 관련 국가 문화재 한 건도 없어 호재 기대

등록 : 2010년 05월 13일 (목) 18:33:35
최종수정 : 2010년 05월 13일 (목) 18:33:35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 잠녀 문화’의 문화재 지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많은 관심에도 ‘해녀노래’가 도 지정 문화재에 포함된 것 외에는 별다른 문화적 가치를 평가받지 못해 온 ‘잠녀 문화’의 국가 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신임 이근무 문화재청장의 방침에 따라 지방 문화재의 국가 문화재 승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뒤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국가 문화재 승격이 이뤄졌다. 지방 문화재가 국가 문화재로 승격되면 지방문화재 지정이 자동 해지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새로 마련되는 기준에는 지방 문화재와 국가 문화재에 명확한 구분을 두고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지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기준에 걸 맞는 새로운 문화 유산을 발굴해야만 국가 문화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97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한 해녀노래와 지난해 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한 ‘제주해녀의 물뿔과 물질도구’의 국가지정 문화재 격상을 신청했지만 이들 기준 변경 방침에 따라 아직까지 결정 여부를 통보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도 지정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제주 잠녀 문화’의 국가 문화 지정이 힘을 얻고 있다.

잠녀 문화는 의복과 물질 도구, 해녀노래, 무속 신앙, 생활양식 등 잠녀와 관련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여성 중심의 해양 문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기준이 없어 ‘문화’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방 무형 문화재의 승격 신청이 많아지면서 별도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르면 두 달 안에 새로운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